플레이31의 '소재구조대'

우리 주변 재활용 자원들을 구조하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배출되는 폐기물들은 우리 환경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플레이31'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물품들 속에도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이를 재활용해 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포용적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엄효정
플레이31 대표

다양한 안전장비와 작업용 공구함, 작업복과 교구재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직접 일상 속 폐기물로부터 재활용 소재를 분리,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소재구조대' 패키지.

폐장난감 등의 구조와 소재를 살펴보며 해체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해 보는 어린이 소재구조대원의 모습.

뇌병변 청소년 및 성인의 다양한 상태와 형태에 맞춰 개발된 스카프 넥 제품인 '넥키'.

멸종위기종인 톱가오리와 귀상어 형상에 실을 엮은 키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키트인 '지구를 짜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휴대용 직조도구인 '바다를 짜요'

멸종 위기 친구들을 주제로 한 스토리빌더의 챕터 1. 스토리빌더는 비플라스틱·비목재 소재로 만든 친환경 놀이키트다.

디자인을 통해 어린이 문화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플레이31은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돕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31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재구조대'는 일상에서 폐기되는 가전, 컴퓨터 부속품, 어린이 장난감 등을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 분해해 보고, 분해된 소재들을 분류해 소재은행에 저금하는 활동을 하며 물건이 재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 장비를 장착하고 도구를 이용해 작업하는 활동을 통해 자원의 재순환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틀을 다졌다고 생각하여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31은 다년간의 소재구조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폐자원의 순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폐플라스틱 자원을 새활용하는 'precious plastic'(소중한 플라스틱)이라는 오픈소스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작은 직조도구인 '바다를 짜요'와 '지구를 짜요'를 출시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실뜨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이들 도구는 소재구조대 활동을 통해 얻은 소재를 다시 활용하는 한편, 직접 손으로 실과 실을 엮어 작은 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업과 창작의 재미까지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또한 '포용적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중증 뇌병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스카프 넙 제품인 '넥키'를 기획·개발했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한 제품에 비해 장애인의 다양한 체형과 상태를 고려한 제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고안된 넥키는 돌봄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미관상으로도 예쁜 3가지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레이31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키트인 '스토리빌더'를 개발·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플라스틱·비목재 소재인 사탕수수 부산물로 제작된 스토리빌더는 어린이들이 미래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듈형 놀이키트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플레이31은 놀이도구와 놀이교육을 통해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촉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접한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생각과 포용적인 품성을 기르도록 돕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소셜혁신연구소의 '스타트스쿨'

포용과 공존 역량 기를 사회적 가치 학습

상일미디어고 화상 교육 현장.

'소셜벤처 스타트스쿨'은 특성화고교생 대상 온·오프라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통합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고,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로 실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사회혁신을 견인하는 미래사회 혁신가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가치 인식 향상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김광영
소셜혁신연구소 연구원

시각장애인도 촉각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이원코리아의 브레들리 타임피스를 살펴보는 예일디자인고 학생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 교육을 수강하는 성동글로벌고 학생들

서울항공비즈니스고에서 점자학습기 _탭틸로_를 설명하는 오파테크 대표

사회적 가치 인식 및 경제 교육, 공공혁신정책 연구·개발과 실행,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셜혁신연구소는 그 주축인 교육사업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사회적 가치 향상 무상 교육과정 운영, 소셜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벤처 스타트스쿨'은 미래를 주도할 특성화고교생들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셜혁신연구소의 핵심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열리고 포용국가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혁신연구소가 위치한 성동구에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가 하나둘 모여들어 '소셜벤처 밸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셜혁신연구소는 비즈니스 서비스 혁신과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셜벤처의 사례를 다음 세대에 전파하고, 교육생들이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후 교육 내용과 성과를 인정받고 이를 더 알리고자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의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양질의 교육) 관련 프로젝트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해 선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셜벤처 스타트스쿨의 교육 과정은 '워밍업→스킬업→빌드업→스타트업→스케일업'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성화고교생들은 사회혁신 확산교육에 해당하는 워밍업·스킬업 단계까지 교육받는데, 교육의 내용은 소셜벤처 대표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벤처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학습해 보는 것입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및 대면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교사의 지도 하에 진행하며, 대면 특강은 소셜혁신연구소에서 지원하는 강사 및 소셜벤처 창업가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대면 특강을 비대면 특강으로 전환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에 따라 교육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 학교별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셜혁신연구소는 2019년도부터 진행한 소셜벤처 스타트스쿨을 통해 3천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본 교육의 대상을 특성화고교생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으로 한층 더 넓혔고, 올해에는 더욱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공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가치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명공정여행학교

배움과 나눔, 배려가 있는 여행

조정의
상명고등학교 교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막대한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현지인과 현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존의 여행 대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명고의 공정여행 역시 그러한 지속가능한 여행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충남 홍성 홍동마을에서, '청춘의 힘으로 마을을 가꾸다'.

유네스코학교인 상명고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참다운 여행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해마다 '공정여행'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여행지에 대해 더 알고 떠나서(배움), 여행을 통해 여행자와 현지인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를 맺고(나눔),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배려) 테마가 있는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특별한 여행에 함께하기를 희망했고, 그 중에서 선발된 여행단 학생 40여 명은 출발에 앞서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현지 정보 교육 외에도 여행지의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그 해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시작으로 세부 주제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여행하게 될 곳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주제에 맞는 단체복과 여행소품을 준비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입니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에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떠나는 여행에서는 장거리 트래킹이나 농활 등의 활동을 통해 땀과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협동을 통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모둠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지적 영역을 채우는 활동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취침 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그날의 개인 여행일지를 작성하며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행기간 내내 현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를 되가져옵니다. 또한 소중한 아이들을 낯선 여행지에 보내는 부모들을 위해 사전 교육에서부터 여행 일정 전체에 걸쳐 학생들의 실시간 사진과 설명을 온라인 소셜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내실 있는 여행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행 후에는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가을에 개최되는 학교축제에 사진전의 형식으로 전시해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이 공정여행의 배움을 함께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012년부터

공정여행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학생들의 웃음이 아닐까.

10명 남짓한 마을의 초등학생을 위해 72시간을 달리다.

2017년 경북 봉화 외씨버선길 제8구간 '보부상길' 트레킹, 힘든 여정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다.

상명고 유네스코
유튜브 채널

공정여행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공정여행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지역을 달리해 개최해 온 상명 공정여행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실제 여행지에서의 프로그램 기획까지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점도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특히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되던 2018년에는 학생들이 충남 아산 외암 강당마을 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 재능기부를 실시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2019년에는 각 모둠별로 독립선언서 내용을 분배해 그 내용에 맞게 나레이션, 뮤지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연기 등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독립선언서 전문을 낭독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년간의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양질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지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며 순수한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본 마을공동체를 통해 바람직한 도시공동체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는 공정한 경제활동의 구체적 사례 또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년처럼 공정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작년에도 본교는 공정여행의 핵심인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여행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여행의 주제와 테마를 선정하고 그 여행에서 공정여행의 요소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평소 잘 가보지 않았던 지역 시장을 탐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내 진로에 필요한 부분을 배우기 위한 진로탐색여행을 떠나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삶 속에서 공정여행의 의미를 실천해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올해의 상황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도교사와 기획단 학생들은 경쟁 일색의 입시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휴식과 배움을 제공하는 한편, 세계시민의 자질까지 키울 수 있는 공정여행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맘껏광장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가꾼 표현과 참여의 장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성한 맘껏광장은 직업체험교실을 비롯해 다양한 축제와 모임이 열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군산시가 만든 국내 최초의 아동권리광장으로 2019년 ESD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맘껏광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광장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다혼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맘껏광장 내 카페테리아에서 열린 직업체험교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2016년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는 군산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의견 존중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맘껏광장'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기존의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이 광장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자체가 선발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성인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광장 조성에 관한 상황을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실제로 반영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광장 조성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협의 과정을 거치며 맘껏광장의 구체적인 디자인과 구상, 공식 명칭은 온전히 아동과 청소년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간주됐던 아동과 청소년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우수한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맘껏광장 역시 이들이 사회발전에 책임을 지닌 사회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핵심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전까지 군산시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이 한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마트 앞 부지 등을 빌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에서부터 참여한 맘껏광장은 그들이 더는 돌봄의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맘껏광장이 조성된 이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느끼고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도록 하고자 '청소년,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하에 맘껏광장을 '민주시민광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동안 놀이 공간 정도로만 인식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빈 공간으로 여겨졌던 광장에서는 이제 '광장자유축제'와 '광장포럼축제'가 개최되고, 각종 청소년 모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버스킹 공연, 발표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약 8개월간 788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맘껏광장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참여가 단지 토론이나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춤과 음악, 그림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 표출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널리 알리고 그 개선 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산시는 맘껏광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생직업체험교실'을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총 58회에 걸쳐 672명이 참가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은 15개 직업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는 참여 소감 발표문과 맘껏광장 활용 제안서를 받아 맘껏광장의 향후 발전 방향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맘껏광장에서 체험활동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맘껏광장 내 시설의 보완점과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직업 체험활동 이후 맘껏광장 내 카페테리아의 실내가 너무 더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지붕 단열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냉난방기를 구입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체험 및 교류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 활동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맘껏광장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기관과 단체 간 네트워크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맘껏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제천 시민환경지도자대학

1회성 학습 넘어 풀뿌리 환경사랑으로

환경 관련 교육이 '일회성 체험 행사'를 넘어 일상 속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ESD 활동이 늘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다. 2016년에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제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며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명숙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역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자연 치유도시 제천'은 충북 최북단에 위치하며 삼한시대의 대표적 수리시설인 의림지와 산수가 조화로운 청풍호가 있는 청풍명월의 도시다. 이곳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매년 봄 무렵이면 시민들을 맞이하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지난 2002년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 개설됐다. 우리 지역의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의제는 '시민의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제천시 '지방의제21'의 주요 의제 중 '시민환경교육과 주민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강화'의 실천을 위해 개설된 것이 바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이다. 시민들이 환경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한편, 지역의 환경시책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가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매주 1회 3개월 과정(14주)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

그램은 2020년까지 총 26기의 과정이 진행돼 현재까지 약 147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각 기수별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를 결성해 동문회원 모두가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회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참여자들은 수료와 동시에 자발적 모임을 구성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유지·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현장 견학을 통하여 지역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료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운동 실천과 시민 계도를 통한 환경지킴이 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제천 지역 전체가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인정받아 2005년에 '지방의제21 실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당초 통합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2005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주제로 분화되어 심화된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정규과정이 꾸준하게 진행될수록 동아리 모임의 전문성도 성장하여 2004년부터 '생태안내자 숲정이'가 구성되어 회원들이 환경교실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이후 꽃과 나비 탐사회, 민물고기 탐사회, 솔방죽을 사랑하는 모임도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천시 자연해설사 양성, 기후변화 해설사 양성, 제천시 그린리더 양성, 명예환경감시원 등 테마교육을 진행하며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의 운영성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솔방죽생태공원 조성사례다. 고종 9년인 1872년에 축조된 솔방죽은 이후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점차 그 역사성이 퇴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2002년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솔방죽의 공원화를 제안하고 제천시와 지속적인 토론 및 협의를 통해 2006년 충북 최초의 습지생태공원을 완성했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솔방죽에 습지식물을 심고 정화활동과 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단체가 바로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수료생 모임이었다. 수료생들은 현재도 각 기수별로 생태 모니터링과 생태복원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민관 거버넌스 우수사례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수료생 중 11명은 솔방죽 생태해설사로 위촉돼 연중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150여회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 내에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2005년 결성된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총동문회는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후원 및 실천조직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거리캠페인, 환경노래개사 경연대회, 환경의 날 기념 청풍명월 그린페스티벌의 주관단체로 참여해 왔다. 매년 12월에는 '환경인의 밤'을 개최, 각 기수별 연중 동아리 활동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 동아리 시상과 어울림 한마당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은 그 교육과정만큼이나 수료 후의 기수별 활동 사례도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초기의 모임은 월례회를 통해 주변 정화활동을 펼치는 수준이었지만, 연차가 쌓이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활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영역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러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이후에는 서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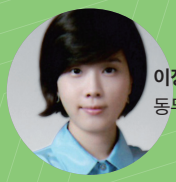
시민환경지도자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 관심사를 매개로 지속가능발전과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구호 아래 다시 크고 작은 실천의 응집체로 다양하게 뭉쳐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소규모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민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좋은 예다. 더 다양한 활동 사례와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다음 카페 '환경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 초록의 희망을 충전해 주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길 권한다.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한 착한 실천

동두천 숲 학교 프로그램 중 10-11세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는 지난 2019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이 지구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이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각 학급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후 3D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제품 디자인을 거쳐 3D프린터로 시제품까지 만들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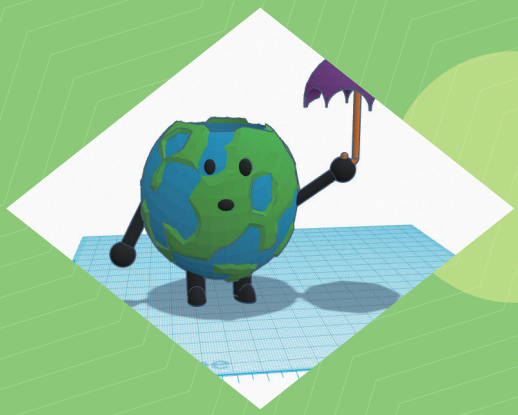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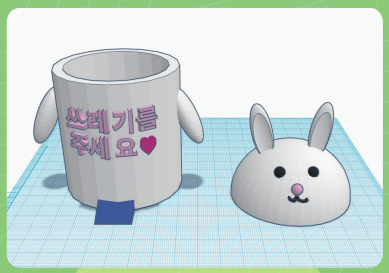
이정원
동두천시 관광휴양과 주무관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행복한 숲, 함께 만드는 초록 지구'라는 주제 아래 유아 및 청소년들이 숲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는 10-11세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숲' 콘텐츠 중 하나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초록 지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분석한 뒤 스스로 창조적 결과물을 제작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완성해 보는 과정 속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할뿐 아니라 디자인 및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함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해 2019년까지 총 3600여 명의 어린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10-11세 초등학교 학급 단체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 학급은 총 8차례에 걸쳐 수업을 받게 됩니다. 1회에서 7회까지는 각 학급에서 회당 40-45분 가량의 수업을 진행하며, 8회차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 그간 제작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착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아이들은 여덟 번에 걸친 수업을 통해 지구촌 문제가 머나먼 나라의 문제가 아닌 자신과 가족, 친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업은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맥락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수업 시간, 아이들은 맛있는 초콜릿 쿠키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퀴즈를 통해 풀어봅니다. 초콜릿 쿠키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생산 국가, 쿠키를 굽기 위해 사용하는 오븐을 작동시키기 위해 쓰이는 자원 등을 함께 분석해 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작은 제품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깨닫고, 다른 곳에서 생기는 문제가 곧 나의 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2-4차시 수업에서는 국제기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에코 디자인, 적정기술 등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지만 앞선 수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친구가 겪는 어려움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한 아이들은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17가지의 공통된 약속인 SDGs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에코 디자인, 적정기술 등이 갖고 있는 뜻을 이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페트병 전구 체험'을 통해 적정기술 디자인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아이들은 복잡한 기술 없이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적정기술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웃나라 친구를 위해 직접 제안해보는 적정기술 디자인' 시간에 아이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언제나 참신하고 재미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조별로 팀원과 함께 문제 상황을 고민해 보고, 적정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직접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품을 스케치한 뒤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결코 쉽지 않지만, 제품 기획과 디자인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은 높은 성취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해당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담당자로서, 단 8번의 수업만으로 아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이처럼 작지만 강한 ESD 프로젝트인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를 앞으로도 착실히 운영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이 지역을 벗어나 보다 많은 곳에서 환경 운동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메디피스 국제보건 아카데미

인도주의로 더 건강한 세상 만들기

▲
베트남에서의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열린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토론회 현장 모습.

메디피스는 중학생부터 전문 의료인까지 다양한 시민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보건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신상문 메디피스 사무총장

'지구촌 주치의'를 꿈꾸는 메디피스는 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보건교육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정받은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려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메디피스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제보건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국제보건 전문 NGO인 메디피스는 국제보건 활동을 준비하는 청소년, 대학생, 전문인 등에게 국제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과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건활동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 프로그램은 국제보건 캠프, 국제보건 심포지움, 국제보건 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보건 핵심역량 강화 아카데미'의 경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6개의 주제별로 2회씩의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아카데미의 목표는 ▲국제보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전문적인 국제보건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보건대학협의회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공통적인 국제보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보건 사업 기획 및 수행에 있어 실무 위주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제보건 사업에 적합한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45명은 보건의료 종사자, 국제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NGO 실무자, 국제보건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국제보건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개념연구 보고서(콘셉트 페이퍼) 작성을 위한 그룹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의 국제보건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보건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프로보노 스칼라(지식기부학자)들의 강의 기부를 통해 진행된 '인도주의 활동가를 위한 국제보건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 보건의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보건 활동가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총 24주 동안 3개 학기로 나누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컴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옥스퍼드 청년 인도주의 아카데미'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국제사회 인도주의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의 인도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있는 국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 웰컴의학사연구소의 소장이자 의학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크 해리슨 교수와 실천윤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줄리안 사블레스크 교수, 분쟁 지역에서 다양한 구호활동을 해 온 알레하웰리 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석학과 국내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인도주의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매년 꾸준히 한두 차례 진행했던 '국제보건 캠프'도 있습니다. 양일중학교 학생에서부터 제주대학병원, 경기도의사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이 캠프는 각 참가자들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대구한의대학교의 경우,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 보고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필드스터디(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대구한의대의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 실내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재학생과 교수진은 특수교육시설인 꽝찌 장애인학교의 학습 및 기숙사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도출했고, 그 결과를 발표회를 통해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양일중학교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청소년 리더십 캠프로,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들과 교류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캠프는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보건체계 강화', '한국의 국제보건', '소외열대질환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국제 응급의료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심포지움을 개최해 온 메디피스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제보건 NGO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보건 이슈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오산백년시민대학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프로젝트

▲ 징검다리교실에서 진행되는 학습살롱

▲ 시민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시민활동가가 기획한 오산 평생학습 이웃축제

경기도 오산시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모두가 두루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을 만들어 2019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았습니다. 누구나 평생교육의 디자이너이자 기획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학습살롱의 내용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최고운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운영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은 동·서양의 문학, 역사, 철학 등의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과 내가 속해있는 집단, 나아가 이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살롱은 매 교육 마지막 시간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시민활동가(이하 학습살롱플래너)와 학습자, 강사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습자들은 학습살롱을 통해 '앎, 관심, 기회, 만남, 재미(즐거움), 자신감, 실천, 성찰(탐구), 가족과의 추억, 오산에 대한 이해'를 얻고, 학습살롱플래너와 강사에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을 주는 동시에 일자리 제공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운영한 '나의 인생 사건으로 써보는 에세이'라는 과정에 참가한 한 학습자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강사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청년기에 작성해 둔 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며, "아들과 딸이 함께 퇴고도 하고, 책 표지 디자인도 하면서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59세 남성 학습자는 "퇴근 후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학습살롱을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빠졌다"고 말하며 "지인들과 학습경험을 나누며, 자신감과 꿈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보물 활용하기

'학습살롱플래너 3년이면, 동네 사람 다 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학습살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학습살롱플래너는 지역사회 내에 전문자격증이 없어도 그 분야에 노하우와 지혜가 있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숨은 보물같은 분들입니다. 학습살롱플래너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 덕분에 우리 이웃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혜, 재능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대 보낸 오산 맘에게 듣는 자녀 양육 비결'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평범한 엄마의 아이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옆집 딸이 알고 보니 프랑스어 전문통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프랑스 여행 준비! 프랑스어 기초회화와 음식문화' 강좌를 통해 그 재능을 시민들과 나누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4명을 학습살롱 강사로 발탁, 각각 베트남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와 그 문화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습살롱은 2019년까지 오산시의 공유학습공간인 '징검다리교실'을 활용해 대면 강좌로 운영됐습니다. 오산시는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대신 오산시 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징검다리교실로 지정하고 6개동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캠퍼스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우리 집 앞 10분 거리'에서 교육장소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을 마련했고, 이 프로젝트 또한 2020년 ESD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하였으며,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인 카페, 꽃집, 학원 등을 학습장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살롱에 참여하는 수강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업장 홍보와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삶의 기획자

연간 300개의 강좌(분기별 75개 내외)가 운영되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03명의 학습살롱플래너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민활동가인 학습살롱플래너에게 학습살롱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는 한 플래너는 "모두 함께 매 분기마다 운영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회의를 하면서 설득의 기술과 발표 능력이 향상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활동했던 한 플래너는 "결혼을 하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오산으로 와서 전업주부로 10년을 살다가 우연히 학습살롱 교육과정에 참가했다"며 "학습살롱플래너로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또 다른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77세의 플래너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의 50세 이상 시니어 장기교육과정의 수강생이었던 내가 이제는 학습살롱플래너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산시는 올해부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방법을 확대했고, 그 결과 기존에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로부터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은 앞으로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서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생의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실천 교육' 프로젝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소비란?

가톨릭대학교는 2010년 3월 윤리적 소비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 '소비윤리' 교과목을 핵심교양과목으로 개설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2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았으며, '대학생의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실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경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상거래윤리'를 주제로 한 윤리적소비실천 조별활동.

대학생들의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해

이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지나친 소비로 인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생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16주에 걸쳐 ▲ 현대소비사회의 특성 ▲소비윤리와 윤리적 소비 ▲상거래상 소비윤리 ▲구매운동 ▲불매운동 ▲녹색소비 ▲로컬소비 ▲공정무역 ▲공동체운동 ▲절제와 간소한 삶 ▲기부와 나눔 ▲윤리적 소비 실천과 행복한 삶 등의 주제를 다루며, 학생들은 강의와 영상자료 시청, 조별 토론 및 발표를 거치며 윤리적 소비 실천을 공유하고 성찰할 기회를 갖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는 조별 토론과 활동이 어려워 학생 각자가 사유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으로 프로그램 확산

2012년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으면서 전국 여러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개설 문의가 이어져 현재 10개 대학(가톨릭대, 서울대, 서원대, 성균관대, 순천대, 연세대, 원광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에 교과목이 개설됐습니다.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2010년에 출간한 책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는 2017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14명이 『행복한 소비 윤리적 소비』로 개정해 현재 프로그램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담당 교수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관점에서 본 윤리적 소비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의의'(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6) 연구를 진행해 본 프로그램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생들의 관심 증가

강의와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수업이 보다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윤리적 소비 실천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ESD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각 대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담당 교수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로컬소비'를 주제로 한 윤리적소비실천 조별활동

'로컬소비'를 주제로 한 윤리적소비실천 조별활동

'불매운동'을 주제로 한 윤리적소비실천 조별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ESD 관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공유합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소비와 윤리' 인터넷 카페(cafe.daum.net/EthicalConsumer)를 개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의 내용과 자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아, 2014년에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중핵교양 필수과목 중 사회윤리 교양영역의 전체 19개 과목 중 '수강하고 싶은 과목' 2위로 뽑혔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며 가톨릭대학교 내에서 진행한 '수업 감동 나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2013년 1학기, 2013년 2학기, 2014년 1학기에 각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12년간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12개 대학에서 8200여 명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하고 공정한 소비 시장 확대 노력

지난 2012년에 프로젝트 담당 교수들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와 윤리 교과목 수강 대학생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 행동의 변화'(한국생활과학회지)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가진 윤리적 소비자로 성장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 윤리적 소비에 대해 낯설어하고 관심과 이해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았던 학생들은 프로그램 수강 이후 윤리적 소비에 대한 보다 깊고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수도권에서는 대학생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윤리적 소비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장 환경도 조성되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공정무역 등 다양한 윤리적 소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대학생들이 윤리적 소비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ESD와 SDGs를 연계해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일환으로서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 지역사회 내 자원 순환을 위해 청소년들이 손수 제작한 아이스팩 수거함 '꿀꺽이'.
2 지역사회 캠페인을 펼치며 역곡상상시장 내 라디오부스를 방문한 단원들.
3 길바닥의 껌 위에 그림을 그려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한 '길거리 스케치북' 활동.
4 청소년들이 역곡역 앞에서 벌인 아이스팩 재활용 홍보 캠페인.

부천시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마을 변화 프로젝트

2019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부천시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 내 환경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푸름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 마을기획단의 시작

202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도시 녹지율은 30%이지만, 부천시의 도심 녹지율은 13%로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련관이 위치한 1호선 역곡역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이나 환경에 유해한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해당 지역을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13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입니다.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사회를 진정한 '마을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통과 연계 통한 지역사회 개선 프로젝트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마을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연 2개 이상의 다양한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태양광 가로등 설치, 마을 쓰레기 줍기, 전철역 쓰레기통 설치, 찾아가는 마을놀이터, 우리 마을 달력 만들기 등을 기획했고,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활동가들과 연계해 이를 시행하면서 청소년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길에 버려진 껌들이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을 보고 이를 고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길거리 스케치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바닥에 지저분하게 붙은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지역 내 곳곳에 각양각색의 꽃들로 장식된 예쁜 길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 숲을 산책하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선제품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소비가 늘어난 반면에 이것이 마을 내에서 효과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해 지역 마을활동가와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수련관에 아이스팩 수거함 '꿀꺽이'를 비치해 둔 뒤 아이스팩을 직접 수거했고, 이를 세척·소독해 경기두레생협과 역곡 상상시장 상인회에 제공함으로써 마을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무더위에 지쳤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냉각제가 필요한 가정에 이 아이스팩을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모니터링에도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 마을기획단은 청소년의 달에 제안한 '일회용품 없는 날'을 토대로 한 제로웨이스트 활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제작 등 다양한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주도로 싹틔우는 지역사회의 변화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은 ▲문제인식 ▲사례분석 ▲대안찾기 ▲실행 ▲확산의 5단계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을 지속가능한 터전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프로젝트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되고,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성장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히고 있습니다.

9기 마을기획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우진 단장은 "코로나 사태로 마을 속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제약이 있어 아쉽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고민해보고 실천하면서 조금 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9기 신규단원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 첫 마을활동을 시작한 윤하진 단원은 "일상에서 간단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작은 활동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마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뿌듯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은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이를 진행해 나가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소중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의 필연적 협력

2018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방과후교육 및 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혜영
도봉구 혁신교육지원센터장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은 ▲초등학교 안 방과후학교 직영 운영 프로그램인 '도봉형 방과후학교' ▲학교 밖에서 열리는 방과후학교인 '도봉형 마을학교' ▲청소년 자치활동의 일환인 '개(開)판 5분전 동아리 활동'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봉구의 활동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시민 단체 등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상호 연계·협력을 기본으로 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고 있습니다.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시작된 '도봉형 방과후학교'

도봉구가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사업의 한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부분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활동입니다. 정규교육과정 이후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을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을 배우고, 마을을 위해 배우는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21개 초등학교(공립) 중 2021년 현재 12개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공위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도봉구 교육포털인 '도봉배움e'를 개설해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신청을 받는 등 도봉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을학교는 '온마을'에서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강좌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학교 밖을 넘어선 마을체험으로 확대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봉구는 학교 밖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체험 중심의 '도봉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마을학교의 운영 주체는 관내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 및 법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주민 모임(3인이상) 등입니다. 이후 개인공간 및 청소년 기관, 마을의 공유공간을 마을학교에 기부하는 등 지속가능한 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교육사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었지만, 도봉구 마을학교는 개인 공간을 열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음에도 개인 사적공간을 열어 방과후 돌봄을 운영했고, 올해도 87개의 마을학교에 8000명의 아이들이 참여 중입니다. 도봉구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아이들과 만나는 마을학교는 오늘도 온라인이 아닌, '온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삶을 위해 마을에서 판을 열다

2016년 노곡중 학생들이 도봉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한 '개(開)판 5분전 프로젝트'는 이후 다양한 지역 및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1194 명의 개인 및 단체가 4천7백만 원의 모금을 통해 2017년 8월 15일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활동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약 47개 동아리, 565명이 참여해 온라인 발대식, 연말 총회(유튜브 영상) 등 활동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개판 5분전 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자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전용 공간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아지트 사업 운영, 청소년시설(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확충과 더불어 청소년 참여 예산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된 교육이 바로 도봉구의 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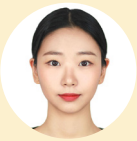
앞으로도 도봉구는 역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터인 도봉구를 배우고, 그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게 해 줄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올바른 주민이 되는 것이 민주적 시민교육이며, 그 지역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곧 글로벌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기반 구축, 그리고 교육자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는 한편,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호이의 'STIC' 프로그램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교육의 장

2011년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로 인증받은 단기집중교사연수 프로그램인 'STIC'(스틱)은 2009년 케냐 코어 지역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우간다 굴루 지역의 교사들과 한국의 교사들을 이어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STIC에 참여하고 있는 우간다 현지 교사들



이신원
사단법인 호이 해외교육개발팀

한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지향하는 교육전문 NGO 호이의 대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STIC(Short-Term Intensive Course for school teachers, 단기집중교사연수)은 한국의 현직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연수를 기획하여, 방학 기간 중 우간다 굴루·오모로 지역의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기준 우간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11%에 이르렀지만, 낙후된 교육 시설과 교사 부족으로 인해 우간다의 교육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교원양성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을 기획하고 연구하거나 평가해 볼 기회가 부족하고 직무연수의 기회가 적은 우간다의 초등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호이는 STIC 활동을 통해 우간다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넘어 양국의 교사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각국의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케냐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우간다로 활동 무대를 옮긴 뒤 올해까지 아홉 기수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국내 STIC 참여 교사들은 연수 넉 달 전부터 현지의 요구를 반영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현지 교육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연수 진행안을 완성합니다. 매 기수마다 STIC의 내용은 서로 다른데, 이는 초기 STIC부터 회를 거듭하며 현지의 교육상황에 더욱 적합한 내용과 교사들의 필요를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진행된 3기 연수에서는 현지의 학생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활동을 시연했고, 4기 연수에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연극 세션이 진행되어 현지 교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참여와 현지 수요에 따른 보완을 통해 동 프로그램은 강의식 수업과 시연, 그룹 토론, 교육 방법론부터 수행평가, 예술 및 체육 교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포함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STIC에 참여한 한국의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연수의 성과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사는 STIC 연수에서 접했던 문해 교육 워크북 활동을 적용해 학생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ESD 실천사례를 발굴하고자 2011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ESD 공식프로젝트'로 선정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지면으로 소개합니다.

우간다 굴루 지역에서 진행된 제6기 STIC 'Breathing in the Forest' 연수 현장 모습

과 함께 이야기책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현지 교사를 만났고, 또 다른 교사는 STIC에 참여한 교사들이 몇 년 후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며 현지의 변화를 실감했다고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사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고, 우간다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한국 내 교과, 동아리, 학급 운영에도 반영하며 그간의 경험을 더 많은 교사들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하는 STIC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우간다를 방문하지 못하던 한국의 교사들은 지난 9월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수를 통해 우간다의 교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2021 온라인 STIC에서는 연수를 받는 현지 교사들에게 개별 태블릿 PC를 제공해 온라인 연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간다 교사들은 처음 사용해 보는 태블릿PC와 줌(ZOOM) 수업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활용해 보려는 모습을 보였고, 휴교령이 풀리게 되면 연수에서 배운 기술을 학생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패트릭 선생님은 "온라인 연수가 처음이라 어렵기도 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에 좋은 도전이 되었다"며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한국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사들도 이번 연수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양국 교사 간의 교감과 지식 전달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진행한 온라인 연수는 한국과 우간다 사이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였다는 점과 우간다 교사들의 ICT 역량 강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교육전문 NGO 호이는 교사 한 명의 변화가 곧 수많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 12년간 매년 여러 꿈 많은 교사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호이는 한국과 우간다의 동료 교사들이 STIC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교사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다지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든든한 통로가 되겠습니다.